

# 濟州漢文學의 문화컨텐츠의 價値

## The value of korea literature of jeju as cultural content

부영근\*

###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IV. 濟州漢文學의 文化컨텐츠의 價値 |
| II. 濟州漢文學의 背景       | V. 나오며               |
| III. 濟州漢文學의 具體的인 模襲 | <참고문헌>               |

### < 국문 초록 >

제주한문학을 문화컨텐츠적 요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개괄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제주한문학의 배경과 제주한문학의 창작 주체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구현된 제주의 산천과 민중생활의 모습을 어느 정도 포착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주한문학의 주된 흐름이 얽혀지고 그 결과 이전과 다른 제주의 정체성이 추론되었다.

제주한문학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 담당주체가 일정부분 제한되었다. 하지만 제주의 독특한 이국적 소재들은 제주에 파견된 관리 유배객 여행객들에 의해 다양한 문체들로 창

\* 영남대학교(bygbyg11@hanmail.net)

작되었다. 제주의 산천 물산 민중생활은 창작 주체들의 시선두기에 따라 조금은 색다른 모습으로 각색되었다.

조선시대 제주관련 한문학 작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은 제주라는 집약된 장소와 소재를 활용해서 얼마간 제주의 정서를 드러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제주만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콘텐츠화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이다.

**핵심어:** 제주한문학, 문화컨텐츠, 삼성혈, 산천, 명승, 민중생활

## I. 들어가며

제주한문학의 문화컨텐츠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제주를 기반으로 형성된 제주한문학의 군상들을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주한문학을 개괄한다는 것은 한문학을 토대로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도를 확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주한문학의 주체가 선명하게 밝혀져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제주한문학의 주체가 제주민이 아닌 육지에서 파견된 관리 유배객과 일부의 여행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sup>1)</sup> 물론 요사이에는 제주한문학의 토속적 군상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동시에 느낀다. 결국 제주한문학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제주라는 수구적인 시각을 혼연히 버리는데서 출발되어야한다.

조선시대 제주는 관리로 어쩔 수 없이 부임하거나 혹은 유배로 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곳이었다. 말하자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유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리와 교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제주였다. 근대와 비교적 가까운 1840년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어 제주도 환경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1) 부영근(2012), '탐라지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전실. "조선조 태호 이원진의 『탐라지』를 비롯한 제주관련 기록들이 거개가 외지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벌레와 뱀까지 따라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반 자나 되는 지네와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잠자리에 횡행하는가 하면 처마에는 새끼 가진 참새가 날마다 뱀을 경계하여 지저귀곤 하는데 이는 모두 북쪽 육지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5월 그믐 사이에는 대단히 무서운 비바람을 한 차례 겪었습니다. 이때에 기왓장과 자같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큰 나무는 뽑혀 넘어져서 뿌리가 서로 이어졌으며 바다에는 파도가 새까맣게 솟아오르고 그 가운데서는 천둥소리가 일어나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나란히 하고 무릎을 맞댄 채 서로 꼭 껴안아서 마치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습니다.”<sup>2)</sup>

유배 온 처량한 처지여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추사 김정희가 느낀 제주도는 육지의 환경과는 너무도 달라서 도무지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 무렵도 그러하거나 그 이전에는 더욱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제주도 자체 내에는 제주의 환경을 기록할 문자적 교양을 갖춘 사람도 적었거나 더구나 제주를 소재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추사는 일찍이 제주의 풍토와 인물이 개발되지 못한 원시적 황무지 상태이고 섬 오랑캐와 같으며 그 중 빼어난 인물이 있어도 『通鑑』이나 『孟子』 등 두 종류의 서책만 읽으며 이들을 지도할 변변한 스승조차 없다고 하여 인문학적 불모지임을 말한 바 있다.

제주한문학은 제주도민에 의해서 주도되지 못한 것이 문학사의 사정이었다. 결국 제주한문학은 제주도를 내방한 육지인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정으론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육지와는 너무도 다른 자연적 문화적 풍토와 환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를 문학적 작품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이 문학적 역사적 기록은 현지인의 체험적 성과물이 아니어서 제주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담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자체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기록들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른 문인 학자들에게 제주도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이국적 풍취를 동경하여 직접 유람할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畵遊를 통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제주도를 답사하지도 않고 제주 관련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현재 문헌상으로 제주한문학 작품들은 이미 고려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2) 『阮堂先生全集』 권3 書牘, 與權彝齋敦仁 참조.

있다. 즉 고려 초부터 제주한문학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조 들어와 더욱 본격적으로 형상화되었으니 이는 한문학이 종식되는 근대 초기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제주도를 직접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작품 활동도 훨씬 활발해졌다.

아무튼 제주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제주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에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유형적 자료로 탐라 개국 신화를 담고 있는 삼성혈 유적 등도 제주의 역사성을 통한 정체성을 이해하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신화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 II. 濟州漢文學의 背景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는 여러 가지 접근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문학 주체가 얼마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관료로 제주에 부임하는 목민관들은 제주한문학의 주된 담당층이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사람은 태조2년(1393) 계유 12월 萬戶兼牧使 呂義孫(생몰연대미상)을 필두로 광무9년(1905) 을사 5월 趙鍾桓(생몰연대미상)까지 총512년 동안 대략 281여 명이었고 대략 같은 수의 판관이 부임하였다. 동시에 143명의 정의현감, 123명의 대정현감이 부임하였다.<sup>3)</sup> 또한 明月鎭 萬戶는 139명이 부임하였다.<sup>4)</sup> 그리고 제주의 총 급제자 수는 333명이었다.<sup>5)</sup> 결국 제주에 자생한 문인들을 제외하면 이 사람들에 의해 제주한문학이 주도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들에 의해 주도된 문학 작품들은 그 자체 문학사의 소중한 자료이지만 한편 특정 지역을 소재로 문학화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방문학으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목민관 혹은 유배객 및 유람객으로 제주도를 찾은 인물로 제주관련 창작할

3) 『耽羅誌』,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先生案」.

4) 『嘉慶 3年 正月 萬戶 先生案』.

5) 『及第先生案』.

등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冲庵 金淨(1486~1521)을 선두로 白湖 林悌(1549~1587), 葵窓 李建(1614~1662), 桐溪 鄭蘊(1569~1641), 淸陰 金尙憲(1570~1652), 北軒 金春澤(1670~1717), 凝窩 李源祚(1792~1872), 石北 申光洙(1712~1775), 秋史 金正喜(1786~1856), 雲養 金允植(1835~1922) 등이다.

제주에 유입된 이들은 지금까지 육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제주도 특유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 경이로운 체험과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곧 제주의 삶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예컨대 冲庵의 『濟州風土錄』, 白湖의 『南溟小乘』, 葵窓의 『濟州風土記』, 桐溪의 『濟州유배 시절 詩』, 北軒의 『囚海錄』, 寓庵의 『南征日記』, 石北의 『耽羅錄』, 凝窩의 『耽羅錄』, 淸陰의 『南槎錄』, 秋史의 『濟州流配 시절 詩』, 瓶窩 李衡祥의 『제주 목사 시절 詩』, 雲養의 『續陰晴史』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sup>6)</sup>

이러한 기록은 采詩를 통한 민풍을 살피려는 집권자의 전통적인 통치 논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에 파견된 관리들의 일상이 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들어 士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당시 문인들은 중앙 집중적 집필 태도에서 벗어나 지방의 고유문화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문학인에 의해 개별 작품이 창작되어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환경 전통이 중앙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6) 졸 고(2006), 「동계 정온의 제주 유배 시 고찰」, 『동아인문학』제11집.  
 \_\_\_\_ (2006),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연구」, 『영주어문』, 제12집.  
 \_\_\_\_ (2000),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한문학』제14집.  
 \_\_\_\_ (2002), 「복헌 김춘택의 수해록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계명한문학회 17집.  
 \_\_\_\_ (2004), 「석복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학』제8집.  
 \_\_\_\_ (2007), 「일제 강점기의 지역 선비의 삶-낙애 채병원 선생의 삶을 중심으로-」, 『동양예학』, 제16집.  
 \_\_\_\_ (2004), 「지방문학으로써 석복의 한시」, 『동아인문학』제6집.  
 \_\_\_\_ (2006),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_\_\_\_ (2005),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 고찰」, 『영주어문』, 제11집.  
 \_\_\_\_ (2009), 「만덕전과 관련한시가 지닌 지역문학적 가치」, 『영주어문』, 제18집.  
 \_\_\_\_ (2010), 『부해집』고찰, 『제주문학』 제52집.  
 \_\_\_\_ (2011), 「울진 지역의 유학전통과 유교문화 유산의 특징」, 『울진문화』, 제25집.  
 \_\_\_\_ (2008), 『인천채씨문헌고』고찰, 『국학논총』, 제7집.

### Ⅲ. 濟州漢文學의 具體的인 模襲

제주한문학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담당주체가 일정부분 제한되었다. 하지만 제주의 독특한 이국적 소재들은 제주에 파견된 관리 유배객 여행객들에 의해 다양한 문체들로 창작되었다. 제주의 산천 물산 민중생활은 창작 주체들의 시선두기에 따라 조금은 색다른 모습으로 각색되었다.

#### 1. 多樣的 創作 主體

제주한문학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 군은 제주로 부임했던 赴任官과 流配客들이다. 조선을 개국하여 일제에 유린되기 이전 500여년 동안 제주를 다녀간 제주목사, 정의대정 현감, 명월 만호가 바로 그들이다. 제주의 赴任官들은 자신이 주로 머물렀던 官衙, 公廨, 防護所들을 자연스럽게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유배객 또한 관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한 바 있다.

제주에 온 부임관들은 자신의 주변에 주목하였다. 그 중에서 관리들이 늘 머물면서 집무를 보고 틈을 타서 쉬는 관아의 모든 公廨들은 좋은 소재가 되었다. 대표적인 公廨로는 東軒客館, 尊敬閣, 延曦閣, 弘化閣, 觀德亭, 望京樓, 友蓮堂, 愛梅軒, 延教亭, 拱辰樓, 演武亭, 運籌堂, 鄉社堂, 日觀軒, 倚斗亭, 靈泉館, 瀛安館, 潤經堂, 明倫堂을 들 수 있다.

海國千年百萬兵	천년을 내려온 섬나라 백만 군사들이
亭前觀德亦風情	정자 앞에서 덕을 살피는 것도 멋이로구나.
山橫刀岳穿空碧	한라산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위로 위용을 드러내고
泉出嘉羅徹底清	가라천 샘물 밀이 들여다보이도록 말끔하네.
朝暮烟中城四面	사면을 두른 성엔 아침저녁 연기 자욱하고
古今人裏角三聲	예나 지금이나 군사들 고각소리에 맞춰 훈련하네.
將軍申令分明在	장군의 엄한 명령 분명하여

誰道轅門事不平 누가 군문에 공평치 못한 일 있다고 말하라!7)

이 시는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閔暉(생몰연대 미상)가 관덕정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479년 문과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고 행정에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1498년 2월 鄭仁耘(1435~1475)의 후임으로 제주에 부임하여 1500년 8월에 上護軍으로 제주를 떠나기까지 청렴하고 공정하게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작자는 1연에서 먼저 변방의 병사들이 조련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통해 觀德亭의 본래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연에서 조금 가라앉은 듯 조용히 제주의 모습을 묘사하고 또 3연과 4연에서 다시 군사들의 활기찬 병영의 모습을 드러내고 엄정한 지방관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주지하듯이 대부분 지방관은 지방 행정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군사적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특히 사방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왜적의 침입이 빈번하고 또한 중앙 정부와 교통하기 어려웠고 전라감영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체적인 군사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주 목사에게 군사를 훈련시키고 조련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이 시의 소재인 觀德亭의 용도는 물론 지방관이 자신의 덕을 살피는 일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군사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 자리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기도 하였던 장소였다.

조선조 이후 제주의 역사는 유배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유배지로 전락하였다. 제주에서 3년 동안 유배를 격고 생을 마감한 광해군에서부터 다양한 조선의 문인들이 제주에 유배되었다.

사건적으로 보면 流配는 죄인을 멀리 귀양 보낸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원적으로 流와 配는 그 뜻이 조금 차이가 있다. 流는 아주 먼 곳으로 보내어 살게 한다는 뜻이다. “죄가 綱常을 범하여 속사정이 아주 깊은 자는 태장 100대를 치고 3000리 밖으로 보내는 형에 처한다(罪犯綱常情理深重者杖一百流三千里 『大典通編』)”라고 한 것이 流刑을 보내는 법조문이고, 配는 먼 곳으로 보내어 어느 곳에 배속시킨다. 즉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게 장소를 한정시킨다는 뜻이다. “역적의 아버지가 나이가 80이면 사형을 감하여 먼

7) 閔暉, <觀德亭>.

곳 섬에 가두어 살게 한다(逆賊父年八十者減律絶島定配 『大典通編』), “주인을 배반한 노비를 본 역을 따라 먼 곳 섬에 가두어 살게 한다(叛主奴婢仍本役絶島定配 『大典通編』)”는 조목의 말처럼 가두어 살게 하면서 자기의 본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配刑을 보내는 법조문이다. 또한 “추자도와 제주 목에는 특별한 명이 없으면 정배하지 못한다(楸子島濟州牧特教外勿爲定配 『大典通編』)”는 조목이 있고, “제주 삼읍에 유배된 이는 삼 읍 안에서 서로 비등하게 정배한다(濟州三邑流配者三邑內互相定配 『大典通編』)”라는 조목을 통해 모든 유배자들을 제주의 사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분산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같은 제주 유배라도 제주 목, 대정 현, 정의 현의 구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조선조 동안에 삼 읍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유배객들이 거쳐 간 정의현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산군 4년(1498)에 洪裕孫, 광해군 4년(1617)에 金德龍, 9년(1617)에 元悤, 인조 원년(1623)에 徐兢, 6년(1628)에 李珙(仁城君)의 처자, 7년(1629)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4명, 25년(1647)에 洪茂績, 효종 5년(1654)에 宋之濂, 현종 15년(1674)에 李鼎基, 숙종 29년(1703)에 閔時俊, 경종 1년(1721)에 趙鼎彬, 2년(1772)에 申鉞, 같은 해 趙聖復 李壽民, 3년(1723)에 金善材, 다음 해에 金一鏡 李時弼 金聖鐸, 영조 4년(1728)에 尹鳳朝, 27년(1751)에 李存中, 31년(1755)에 노예가 된 德福과 趙榮恒, 沈鼎淵, 沈來復, 32년(1756)에 崔鶴壽, 34년(1758)에 李亨達, 36년(1760)에 申思運, 다음 해에 千光福, 45년(1769)에 金履禧, 47년(1771)에 黃德惠와 愛連, 다음 해에 金致三, 정조가 즉위한(1776)에 洪纘海, 姜德燁, 이름을 알 수 없는 흑산도의 죄인, 4년(1780)에 洪柱翼, 6년(1782)에 趙貞喆, 14년(1790)에 정배 중인 李會遂와 中 信圭, 헌종 14년(1848)에 李承憲이 유리안치 되었다.<sup>8)</sup>

제주에서 10년간의 유배생활을 했던 桐溪 鄭蘊(1569~1641)이 남긴 시는 총 519제 554수이다. 그 중 현전시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280제가 제주 유배기의 작품들이다.

日暮村煙起 해 저물녘 마을에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8) 오문복(2005),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鴉鳴老樹疏 갈 까마귀는 성긴 고목에서 우는구나.  
 濁醪知妙理 막걸리에 묘한 이치 있음을 알겠나니  
 枯恨覺驅除 메마르고 한스러운 마음 사라지게 하는구나.<sup>9)</sup>

작가는 해 저물녘에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성긴 고목에 앉아 우는 갈 까마귀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답답해오는 가슴 한 편을 억누를 길 없었을 것이다. 다만 막걸리에 의지하여 씻어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달래며 연거푸 잔을 들이킨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은 후회로 남아 “나의 삶은 도리어 이와 같지 못하여/ 부나비의 위험을 끝내 알지 못했구나(吾生反不若/ 終昧赴燈危)”라며<sup>10)</sup> 부나비처럼 무모했다고 나무라기도 하고, “이것을 누가 금하고 막았기에 끝내 저버렸나/ 십년 세월 돌이켜 생각함에 얼굴이 붉어지네(伊誰禁禦終辜負/ 十載追思面發燠)”라며<sup>11)</sup> 얼굴을 붉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매파에 인연하지 않고 (시집 가 듯이) 남쪽으로 귀양 왔으니/ 다만 영주의 바다 마을에서 신선의 도를 구하려 한다(不緣媒得南州謫/ 只爲求仙瀛海聊)”며<sup>12)</sup> 자신의 悔恨의 情緒를 求道로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노소론의 격렬한 당쟁 속에서 제주유배를 경험했던 北軒 金春澤(1670~1717)은 제주와의 인연이 많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의 주변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 중 부친인 金鎮龜(1651~1704)와 그의 사위인 任徵夏(1687~1730)가 北軒에 앞서 제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그는 22세에 해배된 부친을 모시러 제주에 들어갔다가 부친의 문하생들과 산천을 유람하며 제주를 묘사한 여러 편의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의 나이 37세 제주에 이배되어 제주 朝天關에 도착한 1706년 9월 29일부터 1710년 7월23일 別刀浦를 떠나기까지 5년 동안 제주에 적거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러한 작품들을 모아 『囚海錄』이라 명명하였다.

或有宦遊客 여기에 부임해 온 관원들은

9) 정은, <斜陽獨酌>, 『桐溪集』.  
 10) 정은, <有感>, 『桐溪集』.  
 11) 정은, <憶松溪>, 『桐溪集』.  
 12) 정은, <次成觀明韻>, 『桐溪集』.

留連不憶歸 머물고 돌아가려 하지 않는구나.  
 醇醪添氣象 맛있는 술로 기상을 더하고  
 紅粉倍光輝 기녀들을 배로 늘려 분탕질하네.  
 良馬常多取 좋은 말을 항상 빼앗고  
 潛珠亦暗飛 진주도 몰래 빼앗아가지.  
 島氓何所望 섬사람들 무엇을 바라겠는가!  
 御史有霜威 어사가 서릿발 같은 위엄 있기를<sup>13)</sup>

제주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이웃한 고을이 없었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들의 횡포와 가렴주구로 백성들의 고생이 막심하여도 쉽사리 하소연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관원들의 횡포에 대해 1601년 안무어사로 이곳에 왔던 淸陰 金尙憲은 5개 조항의 민폐를 들어 고발하였다. 이 외에도 갯가에 살면서 바다 일로 생계를 꾸리는 浦作人들에 대한 혹독한 징발 등이 자주 열거되고 있다. 그리고 역대 제주에 대한 폐단을 지적한 글 중에는 馬政에 대한 폐단 또한 늘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1426년 제주찰방을 지낸 金爲民(생물연대미상)의 조사에도 ‘권세자들이 마소를 방목하면서 함부로 백성들의 농작물을 손상시킨다.’는 지적과 1490년 金勿(생물연대미상)의 상소에도 ‘관원들이 사냥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징발하여 피로하게 달려서 죽게 한다.’라는 지적에서처럼 말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sup>14)</sup>

작자는 이 시에서 제주의 상황을 제주 민의 입장에서 당시 제주 민의 고통을 노래하려 하였다.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관리들은 술로 여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또한 당시 가장 심각했던 馬政의 폐단과 潛女의 어려움을 함께 꼬집었다. 실제로 시기는 다르지만 해남 사람 李喜豊의 문집인 『松坡先生遺稿』에는 <濟州貢馬歌>가 남아 있는데 당시 공마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파악된다.<sup>15)</sup> 아무튼 이러한 질곡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위

13) 김춘택, 『北軒集』, 卷2, <囚海錄>, <濟州雜詩>.

14) 김봉옥(2000), 『增補 濟州通史』, p.125, 도서출판 世林

15) 참고로 말을 소재로 지은 金聲久 <送歲貢馬有感>, 李元鎮 <閱馬牛羊>, 李海朝 <驅馬篇>, 李海朝 <山屯牧場點馬留宿村舍>, 蔡濟恭 <蒙賜濟州貢馬>, 趙觀彬 <馬屯> 등 제주 관련 한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엄 있는 어사임을 말하였다.

## 2. 濟州의 山川과 名勝

제주에 들어온 많은 시인묵객들은 이유에 관계없이 제주의 이국적인 풍취에 감동되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자신도 모르게 紙筆墨에 손이 갔다.

제주의 모든 곳이 絶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곳은 漢拏山을 포함한 주변, 그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정상에 내린 눈, 白鹿潭의 모습, 靈室 주변의 풍경, 五百將軍洞 등이다. 이러한 장소들을 포함한 수많은 漢拏山의 빼어난 모습이 시인에 따라 달리 읊어졌다. 그 외에도 城山, 山房山, 松岳山, 龍頭巖, 龍淵, 都近川과 곳곳에 산재한 많은 폭포들, 제주 주변의 빼어난 섬들은 시인 묵객의 손을 비껴갈 수 없었다.

雷動飛泉海作淵 우레 치며 나는 물줄기 바다에 못이 되어  
惘然光景浩無邊 황홀한 광경 넓기가 한량없네.  
更看壁上青蓮句 다시 절벽 위의 이태백 시구를 올려다보고  
閣筆銀河落九天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진다는 구절에 할 말을 잊었네.<sup>16)</sup>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金壽翼(1600~1673)이 정방폭포를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그는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여 항전을 주장하였으나 치욕적인 화의 성립 후에 斥和論者로서 스스로 근신하였다. 또한 1649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으나 탐관오리로 탄핵 받아 嶺南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그는 서귀포에 있는 正方瀑布를 찾고 육지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웅대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작자는 1구에서 正方瀑布의 모습을 처음 대하고 그곳의 위용에 눌린 듯 우레 소리를 내며 바다로 떨어진다고 그 황홀한 모습의 여운을 남기려 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2구와

16) 金壽翼, <正方淵>.

3구에서는 폭포 아래로 내려가 밑에서 올려다보는 正方瀑布의 웅장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폭포의 모습이 '마치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듯하다'고 폭포의 벽에 새겨놓은 이태백의 시구에 동의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제주의 서부지역은 한라산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다. 따라서 산세와 어우러지는 뚜렷한 絶勝이 드문데 해안과 맞닿은 곳에 나지막한 山房山이 있고 그 속에 굴이 있으며 기암절벽이 지금까지도 絶勝으로 꼽힌다. 따라서 한시 작품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元鎭의 〈山房〉, 吳廷賓의 〈山房山(二首)〉, 具齡錫의 〈山房山〉, 任觀周의 〈山房山〉, 韓鼎運의 〈山房窟〉, 元相堯의 〈山房窟〉, 鄭運經의 〈山房窟〉 등이 그것이다.

四海環千里 사면의 바다가 천 리를 둘러 있고  
 三山鼎半空 삼산산 반공에 솟아 있네.  
 乃知仙子所 신선 사는 곳이  
 天作一壺中 하늘이 만든 병 속임을 알겠다.<sup>17)</sup>

이 시는 특이하게도 평안도 龜城 출신으로 순조 때 대정 현감을 지낸 元相堯(생몰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그는 1806년 7월 李宅觀(생몰연대미상)의 후임으로 대정현을 맡았다가 1809년 1월에 대정을 떠났다. 그는 1807년 5월에 임지에 가까운 산방산을 찾아 山房窟의 모습을 시로 지어 바위에 새겨 놓았다.

작자는 1구와 2구에서 산방산을 찾고 그곳의 모습을 작은 한라산처럼 묘사하였다. 그리고 3구와 4구에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山房窟을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으로 그려내고 선향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아마 제주에서도 가장 외진 서부지역에 우뚝하게 서 있는 山房山의 모습을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白湖 林悌(1549~1587)가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것은 당시 濟州牧使로 있던 부친 林晉(1526~1587)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白湖는 대과에 급제한 직후인 그의 나이 28세

17) 元相堯, 〈山房窟〉.

1577년 11월 초순에 제주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여행길의 여러 체험을 통해 『南溟小乘』이라는 日記體의 紀行詩文을 남겨 놓았다. 『南溟小乘』은 산수유기적 성격이 중심이지만 風物誌的 성격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면의 일단을 11월 27일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南溟小乘』을 통해 제주도의 위치와 두 개의 縣 및 三鎮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sup>18)</sup>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임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sup>19)</sup> 또한 토질 및 동물 분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민간의 풍속과 특이한 語音 해산물과 과실 등 특산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그는 제주의 명소를 다녀보고 그것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시화하였다.

海畔巖屹石 바닷가에 삐죽삐죽 높이 솟은 돌인 것을  
 龍頭漫設名 용두암 이름은 부질없이 지었구나.  
 洪濤日夜擊 커다란 물결이 밤낮으로 부딪쳐  
 猶作風雷聲 마치 거친 천둥소리 같구나.<sup>21)</sup>

이 시는 白湖가 제주도의 명소 중에 하나인 龍頭巖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龍頭巖은 제주를 대표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작자는 전반부에서 소문이 무성한 龍頭巖의 위상을 한번 보고 실망한 듯 삐죽삐죽 바닷가에 높이 솟은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승천하는 용의 이미지로 龍頭巖이라고 한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그도 잠깐 커다란 물결이 설 새 없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보라와 천둥소리 같은 파도 소리가 용의 승천하는 기상을 느끼기에 충분함을 깨닫고 거침없고 호방한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그 외에도 三姓穴은 탐라국 개국 설화의 현장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따라서 제주를 형상화한 한시 작품을 남긴 작자들은 三姓穴을 소

18) 林悌, 「南冥小乘」. 島在國之正南 而漢拏山峙其中, 張左右翼如一字橫浦, 濟州一鎮在北而際海, 與頭無岳相對, 旌義縣在右翼之南, 大靜縣在右翼之南 而三鎮爲鼎足之勢, 各據北東西南三隅.

19) 林悌, 「南冥小乘」. 所蓋島間於中原倭島 而倭寇之往來中原也, 必由濟州楸子之間 則島之東西, 爲要衝而防護之繫不在南, 可乎.

20) 林悌, 「南冥小乘」. 11월 27일.

21) 2월 16일, <龍頭巖>.

재로 활용하였다. 金聲久의 〈毛興穴次金淸陰韻〉, 李源祚의 〈三姓穴〉, 金聲久의 〈毛興穴次金淸陰韻〉, 尹鳳朝의 〈毛興穴次淸陰先生韻〉 등과 같이 三姓穴을 역사적 소재로 부각시켜 많이 다루었다. 이곳의 주인인 三乙那도 문학적 소재가 되었는데 耳溪 洪良浩(1724~1802)는 三乙那를 소재로 記文을 남겼다.<sup>22)</sup>

### 3. 濟州의 物産과 民衆生活

제주도는 이국적 환경을 바탕으로 길러진 문화와 풍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의 이국적인 物産은 조선조 제주도를 다녀간 시인 묵객들의 눈에 매우 신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이것을 시적 소재로 적극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육지와 다른 제주만의 물산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말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굴은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으로 제주에 유배 왔던 桐溪 鄭蘊(1569~1641)이 '龍卵'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수선화 또한 秋史 金正喜(1786~1856)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작품 군을 살펴보자. 직접 굴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李源祚의 〈詠橋四絶〉, 高鳴鶴의 〈厥包橋柚〉, 吳章獻의 〈家家橋柚〉, 正祖大왕의 〈詠橋〉, 宋相琦의 〈蒙賜柚復用前韻示僚友〉 등이 있다.

말을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金聲久의 〈送歲貢馬有感〉, 李元鎮의 〈閱馬牛羊〉, 李海朝의 〈驅馬篇〉, 〈山屯牧場點馬留宿村舍〉, 蔡濟恭의 〈蒙賜濟州貢馬〉, 趙觀彬의 〈馬屯〉, 金日海의 〈放牛〉 등이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물산 중에는 말과 굴 이외에 선비들이 자신을 수양하는 이미지로 애지중지하였던 수선화를 들 수 있다. 수선화는 새로운 소재에 목말라하던 조선조 문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수선화를 소재로 지은 작품으로는 吳廷賓의 〈水仙花〉, 吳泰稷의 〈水仙花〉, 金左根의 〈咏水仙花〉, 愼鴻錫의 〈水仙花〉, 金亮洙의 〈三月見水仙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관계없이 수행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다

22) 진재교(2001),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제3부 2장 <이계(耳溪) 홍양호론(洪良浩論)>, 소명출판.

도는 문화적 한 부분으로 계승되었다. 예컨대 徐居正(1420~1488)의 『太平閑話滑稽傳』에서 陶隱 李崇仁(1349~1392)은 차의 효용을 수행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sup>23)</sup>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는 金亮洙의 〈茶煮〉, 高永昕의 〈煮茶〉 등이다.

아버지 仁성군의 죄에 연좌되어 제주에 유배왔던 葵窓 李健(1614~1662)은 제주의 물산 중에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도의 공마에 대해 시로 읊기도 하였다.

海中牧役最爲苦 외딴 섬에 말을 기르는 부역 가장 힘드니  
 顛坑墜江猶不評 구덩이에 빠지고 강물에 떨어져도 개의치 않네.  
 通判但知充馬數 제주 통판 다만 말의 숫자 채움에 급급해서  
 不論流血害蒼生 피 눈물 나는 백성의 괴로움 패넘치 않네.<sup>24)</sup>

조선시대 여러 번의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 정부는 군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貢馬를 더 늘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貢馬를 담당하는 관리들은 군마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무리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國馬場에서 기르던 말이 죽으면 온갖 계책을 내어 가죽으로 받지 않고 꼭 말로 받아서 그 숫자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도 그런 폐해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제주민들은 말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작자는 바로 그런 장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려 하였다. 말은 제주의 물산이지만 이는 자연적으로 나는 물산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제주에서 말을 기르도록 했던 것이다. 1구에서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말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하고 있다. 2 3구에서는 말의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당시 貢馬의 폐단을 묘사하였다. 건장한 말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말이나 죽은 말조차 숫자로 채워 넣기에 급급한 제주통판의 부조리한 행위를 고발하였다. 마지막 구에서는 이러한 부조리한 행위에 고통 받는 것은 제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통판은 이러한 제주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白湖가 제주도를 여행하며 남긴 기록인 『南溟小乘』의 2월 16일자 기록에는 〈迎郎

23)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自樂處>, 陶隱曰 “山房淨室, 明窓淨几, 焚香對僧, 煮茶聯句, 此足樂也” (“도은이 말했다. 산방의 청정한 방, 밝은 창가 깨끗한 책상, 향을 사르고 중과 마주하여 차를 끓이며 연구를 달지.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24) 이견, 『葵窓集』122권. <有歎>.

曲), <送郎曲> 등이 詩가 실려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남성들이 배에 생업을 매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난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였으므로 구조적으로 여성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속을 취재한 작품으로 紀俗的 경향의 시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매년 3월이면 짝을 이루지 못한 여인들이 화장을 하고 술을 들고서 援兵赴防하러 섬에 들어오는 남정네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살다가 8월 罷防할 때 그들과 슬픈 이별을 한다는 내용이다. 耽羅의 일부다처의 현상과 <迎郎曲> <送郎曲>의 기사가 『芝峯類說』 가운데도 이미 보이는 것을 보면 그런 풍습이 오래 전승되어 오는 듯하다.<sup>26)</sup>

가)

三月三日桃花開 삼월이라 삼진날 복사꽃 활짝 피어  
雲帆片片過海來 돛단배들 두둥실 바다를 건너와서  
妍粧調笑別刀浦 단장 곱게 하고 별도포서 노닐다가  
岸上斜陽連袂廻 해지는 언덕위로 팔짱끼고 돌아온다네.<sup>27)</sup>

朝天館裏泣愁紅 조천관안에서 연분홍 눈물 적시는데  
黃帽催行理短蓬 사공은 어서가자 돛을 바빠 올리네.  
東風不道娘娘態 마파람이 새 각시 심사를 아랑곳 않고  
吹送飛舟度碧空 배를 얼른 날려 푸른 바다 위를 떠가누나.<sup>28)</sup>

나)

三時出望別刀堡 삼시 세 때 별도포 보루에 올라 바라보니  
簇簇商帆何處浦 상선들 뻑뻑이 어느 포구로 가는가!  
同類相呼促理粧 친구들을 서로 불러 몸치장을 재촉하면

25) 김명순(2005),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 수용 연구』, 보고서.

26) 이수광, 『芝峯類說』, 風俗, <林梯之送郎曲>.

27) 2월 16일, <迎郎曲>.

28) 2월 16일, <送郎曲>.



櫓聲東入朝天浦 노 젓는 소리 동쪽의 조천포로 들려오네.  
 炎海極天風浪多 먼 남쪽 끝 바다 풍량이 많은데  
 郎君行李今如何 임의 행장은 지금 어떻게 꾸렸는지!  
 從前好事入春夢 앞서는 좋은 일로 봄꿈을 꾸었는데  
 枉被傍人作笑囪 잘못되어 곁 사람들의 비웃음만 끌어들었네.<sup>29)</sup>

다)

瀛洲三月好花開 영주의 삼월 달 봄꽃이 피면  
 兒女凝粧候客來 질게 화장한 아녀자들 손님 맞으러 나온다.  
 盃酒情親笑語欸 술잔에 정 담았으나 웃음소리 서떡해  
 黃昏携手與同歸 황혼에는 손잡고 함께 더불어 돌아가네.  
 妾顏安似似花紅 머물러 있을 때는 칩의 얼굴 꽃같이 빨강다가  
 每向津亭泣去篷 나룻정자에 나갈 때마다 떠나는 거룻배에 눈물짓네.  
 三月逢君八月別 삼월이면 임 만나고 팔월이면 이별하니  
 自君之別霜闌空 이별한 뒤부터는 빈 규방에 서리지네!<sup>30)</sup>

가)는 白湖의 <迎郎曲>, <送郎曲>이다. 앞의 것은 <迎郎曲>에 해당되고 뒤의 것은 <送郎曲>이다. <迎郎曲>은 삼월 삼짇날 복사꽃이 흐드러질 때 돛단배를 통해 들어오는 병사들을 마치고 바다에 나갔다가 물귀신이 된 줄 알았던 낭군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양 반가이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당시 제주 여성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다.

<送郎曲>은 마치 남편을 살아 돌아올 기약 없는 사지의 뱃길로 보내는 것처럼 눈물 콧물 흘러가며 애절하게 헤어지는 상황을 포착해서 그렸다. 헤어지는 이들의 마음은 아랑곳 않고 사공은 돛을 올리고 바쁘게 떠난다. 남편을 태운 배가 미끄러지며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고 아낙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29) 南九明, <迎郎曲> <送郎曲>.

30) 李增, <效林白湖迎送郎曲>.

나)는 1711년에 제주 판관으로 부임하였던 寓庵 南九明(1661~1719)의 작품이다.

다)시 역시 濟州按察兼巡撫御使로 제주에 왔던 李增(1628~1686)이 위의 두 시와 똑 같은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이상의 세 작품은 같은 소재로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이 계승 창작하였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 조선조 제주의 모습을 얼마간 대비시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1733)과 제주도에 유배 왔던 金春澤(1670~1717)의 〈潛女歌〉와 그들의 전통을 이은 듯한 吳箕南의 〈潛婦〉가 있다. 그리고 금오랑으로 제주를 찾았던 申光洙(1712~1775)의 〈濟州乞者歌〉등이 있다.

조선조에는 제주의 여인 중에 굶주린 제주의 백성을 구제한 萬德(?~?)이 있었고, 趙貞喆(1751~1831)을 구한 義女 洪娘도 있었다. 이러한 변방 여인들의 삶은 많은 문인들에 의해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는데 趙貞喆의 〈題洪娘墓〉 〈獄中悲恨〉 〈洪娘發靱絶〉, 朴齊家の 〈送萬德放濟州詩〉 등이 그것이다.

#### IV. 濟州漢文學의 文化컨텐츠의 價値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문학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성의 것들을 버리고 다방면의 노력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시도 속에서 제주만이 가지는 진정한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고정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주한문학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조선시대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선명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주의 역사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금까지 제주의 여러 모습들은 나름의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일정한 성과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로는 제주 태초의 모습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체계화해서 보여주기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자료의 문제이다.

고대의 제주형성초기를 추론해보겠다. 현재 삼성혈의 신화를 기초로 한 탐라의 기원이

정설로 되어있다. 이것은 매우 기득권을 확보한 구체적인 유적이 존재하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제주의 태초를 밝히는 주요한 사료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것은 지나치게 신화에 의지한 고대 탐라의 개국신화라는 신비감을 넘어 제주의 정체성을 고정화해서 더 이상 발전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역설적인 기능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에 부족국가가 태동하고 그것을 기초로 고대국가가 본격적인 왕조의 틀을 갖추면서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가 대륙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부족의 유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또 다른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아직 개화되지 않은 남방의 도서지역으로 세력을 옮겨가려하였다. 제주 원주민의 운명은 이러한 선진화된 세력들에 의해 자연스런 지배구조의 속박된 틀 속에 갇히게 되었다. 결국 제주민들은 삼성혈이라는 우월적 지배구조의 원리를 제공하는 신인의 논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부여가 망하고 고구려가 세력화되면서 수나라의 운명도 나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빈번한 북방의 국제정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유민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운명을 헤쳐나가기 위해 남으로 배를 띄웠고 신안 앞바다까지 물살을 따라 내려왔다. 결국 제주로 입성하여 선진화된 지배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를 삼등분하여 공존하려는 타협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여 夫餘氏의 夫乙那와 高朱蒙의 高乙那와 隋煬帝(楊廣)의 良乙那(신라 시대 梁으로개성)가 제주의 세 지배자가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馬韓 辰韓이 서는 과정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주의 고대사에 대한 추론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든다.<sup>31)</sup>

이상의 논의는 확인되지 않은 추론에 불과하다. 굳이 이러한 추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입증하기 어려운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제주의 역사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어 역사시대와 바로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한 것이다. 이후 제주는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왔다.

결국 제주는 개국 초기 선진화된 북방 유민의 유입으로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가 몰락

31) 김태준(1994),『조선한문학사』, 태학사. “殷箕子の 후손인 箕準이 衛滿에 의해 조선을 빼앗기고 南遷하여 馬韓王이 되고 秦 亡人이 와서 辰韓(혹은 秦韓)을 세웠다.”

하고 고스란히 선진유민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며 토속화되었다. 선진화된 이들의 문화는 정통 한문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어쨌든 제주는 자의든 타의든 선진화된 한문학의 토대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후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말 물려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조선에 이른다. 이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중앙의 선진문화에 의한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의 파괴는 지속되었고 따라서 지역 주민의 고유한 문화는 나락의 길을 걷는다. 예컨대 유배객으로 8개월을 머물며 유배지에서 제주민을 계몽하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제주를 대표하는 五賢으로 선정된 冲庵 金淨은 판서정을 파서 지역민에게 조금 더 나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그 뒤 판서정을 찢던 그 곳이 五賢檀을 세워 橋林書院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지역민을 계몽한다는 미명하에 제주민의 뱀을 숭앙하는 등의 원주민의 문화를 배격하였다. 그리고 한참 뒤 제주목사로 왔던 瓶窩 李衡祥은 철저한 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미신을 혁파한다는 명분으로 원주민의 무속신앙을 뿌리 채 뽑아버렸다. 결국 현재까지도 무속인의 주문에 그를 저주하는 구절이 남아 참담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제주한문학은 조선시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죄를 지어 절도에 고립 유배된 유배객, 다소간의 여행객들에 의해 중앙에 기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이어진 순수 토속의 문학과 어우러져 현재의 제주한문학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싫든 이러한 토대 위에 성장한 제주한문학을 연구 발전시켜 제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를 조금하자면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에 제주에는 9진이 있어 제주의 해양을 철저히 방어하였다. 제주목사가 제주방어사를 겸직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던 제주의 9진 중에 명월진은 만호진으로 지금의 애월 한림의 서부 외곽지역을 총괄하는 국토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지하듯이 조선조 만호는 군직이기는 해도 국토의 변방을 장수에게 맡겨 변방이 유린되지 않도록 배려한 조선의 군 행정조직이었다.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북방의 만호를 역임한 것도 이러한 예이다. 이 기회에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편제를 1목 2현 1만호로 정확하게 정립했으면 한다.

## V. 나오며

이상에서 제주한문학을 문화컨텐츠적 요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개괄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제주한문학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였고 제주한문학의 창작 주체들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구현된 제주의 산천과 민중생활의 모습을 어느 정도 포착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주한문학의 주된 흐름이 읽혀지고 그 결과 이전과 다른 제주의 정체성이 추론되었다.

우리가 제주한문학 내지 지역학을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수구적이 되어간다. 제주만의 것에 집착하다보면 나름대로 제주의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지만 한국한문학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자기만의 제주의 틀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제주한문학의 모습을 구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진정한 제주의 정체성에도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요사이 세상의 화두는 ‘글로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두를 피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내 안의 것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려한다면 또 다른 속박의 틀에 자신을 갇히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내 안과 주변에서 글로벌한 가치를 찾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글로벌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한문학이 글로벌한 모색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성과를 아우르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추론이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결국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제주한문학이 올바른 정체성에 입각해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주 지역학의 전체적인 모습에 접근 할 수 있게 되고 컨텐츠적 개발도 이룰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정희, 『阮堂先生全集』.
- 정은, 『桐溪集』.
- 김춘택, 『北軒集』.
- 이건, 『葵窓集』.
- 林悌, 「南冥小乘」.
-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 이수광, 『芝峯類說』.
- 『耽羅誌』,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先生案」.
- 『嘉慶 3年 正月 萬戶 先生案』.
- 『及第先生案』
- 오문복(2005),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 김봉옥(2000), 『增補 濟州通史』, p.125, 도서출판 世林.
- 진재교(2001),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 김명순(2005),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 수용 연구』, 보고서.
- 김태준(1994), 『조선한문학사』, 태학사.
- 부영근(2006), 「동계 정온의 제주 유배 시 고찰」, 『동아인문학』 제11집.
- \_\_\_\_\_(2006),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연구」, 『영주어문』, 제12집.
- \_\_\_\_\_(2000),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한문학』 제14집.
- \_\_\_\_\_(2002), 「북헌 김춘택의 수해록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 계명한문학회 17집.
- \_\_\_\_\_(2004), 「석복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학』 제8집.
- \_\_\_\_\_(2007), 「일제 강점기의 지역 선비의 삶-낙에 채병원 선생의 삶을 중심으로-」, 『동양예학』, 제16집.
- \_\_\_\_\_(2004), 「지방문학으로써 석복의 한시」, 『동아인문학』 제6집.
- \_\_\_\_\_(2006),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 \_\_\_\_\_(2005),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 고찰」, 『영주어문』, 제11집.

- \_\_\_\_\_ (2009), 「만덕전과 관련한시가 지닌 지역문학적 가치」, 『영주어문』, 제18집.  
\_\_\_\_\_ (2010), 『부해집』 고찰, 『제주문학』 제52집.  
\_\_\_\_\_ (2011), 「울진 지역의 유학전통과 유교문화 유산의 특징」, 『울진문화』, 제25집.  
\_\_\_\_\_ (2008), 『인천채씨문헌고』 고찰, 『국학논총』, 제7집.